

일일 국제에너지·자원 동향

【전력】

- **멕시코, 폭염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으로 일부 지역 정전 실시(주멕시코대사관)**
 - 멕시코 연방전력청(CFE)은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5.8(화)-9(수) 일부 지역 정전을 실시함.
 - 지난 5.8일(화)/5.9일(수) 간 멕시코 내 약 20곳의 주*에서 일시적으로 정전이 발생한 데 대해, 멕시코 연방전력청(CFE)은 국가전력 시스템을 안정화하고 전력 공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정전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
 - * Guanajuato, Sinaloa, Queretaro, Aguascalientes, Oaxaca, Jalisco, Chiapas 등
 - 국가에너지통제센터(CENACE) 또한 전력수급정보*를 발령하였다가 해제
 - * Estado operativo de emergencia(전력공급 부족 및 각종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)
 - 오브라도르(Andres Manuel Lopez Obrador) 멕시코 대통령은 5.8일(수) 기자회견에서 정전 사태가 폭염에 따른 매우 이례적인(excepcional) 일이었다며, 단기간에 전력 시스템이 다시 안정화되었다고 설명함.
 - 또한, 국가 전력생산 역량이 충분하다고 평가하면서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부언
 - 다만,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에서 전력 수급 불안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, 전문가들은 산업시설 증가(니어쇼어링), 폭염(기후변화) 등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전력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지적

【석유가스】

- **이라크 중앙정부-쿠르드 자치구, 원유 수출 재개 위한 공동 위원회 구성(주이라크대사관)**
 - 하이얀 압둘 가니(Hayyan Abdul Ghani) 이라크 석유부 장관은 5.3(금) 1년 넘게 중단된 쿠르드 지역의 원유 수출 재개를 위해 최근 바그다드와 아르빌 간 두 개의 공동 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밝히며, 차주 관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함.
 - 가니 장관은 쿠르드 지역에서 생산된 원유의 소유권을 이라크 정부의 석유부에 넘기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, 국제적 기업들과 체결한 계약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고 설명. 끝.